

<2025년 5월 28일 수요말씀>

하나님은 뜻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본 문 :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은 뜻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잘 듣고 진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사람이 식사할 때 돌을 깨물면

충격받고 놀라고 심정이 상해 내뱉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 심정을 몰라 주고 마음을 거스르면
즉시 화를 내게 되고 등 돌리게 됩니다.

자기가 일하다 실수하여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타인은 어떠하겠습니까.

일하다가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하던 것을 무력으로 잡아당겨 버리든지
집어던져 버리기도 합니다.

음료수병 뚜껑을 딸 때 다른 것은 잘 따지는데
그중 한 개가 잘 안 따지면
은근히 화가 나서 깨든지 버리든지 하게 됩니다.
아니면 던져 놓고 다른 것을 따서 먹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자는 말을 잘 듣는데
그중에 어떤 자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화가 나서 “너 없어도 된다.” 한마디 하고 등 돌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니,
전능자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 느고왕은 요시아왕에게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전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죽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하 35:21)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
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
하실까 하노라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줬는데도
요시아왕은 느고왕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다가
전쟁에서 느고의 군인이 쏜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거스르면 죽습니다.

하나님 심정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자 통해 말씀이 나옵니다.

혹은 그때마다 합당한 자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 신약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애간장 타는 심정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거스르고 악평했습니다.

결국 그러했던 모든 자의 육은

사망권에 죽은 바 되어 실제 고통을 받으며 평생 살게 되었고,
영도 사망에 처해 죽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입에서 나간 생명의 말씀도 거슬렀습니다.

고로 운명이 사망으로 뒤바뀌어 가게 됐습니다.

○ 사람끼리 심정 상하게 하면 참고 가는 자가 있습니다.

참고 가는 자 중에서 뇌가 충격받고 감당 못 하여
생각나는 대로 해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또는 화가 나도 성령과 주를 생명시하고 부르면서
분노의 마음을 참고 가기도 합니다.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살기에

자기 의지나 자기 결정으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심정이 상한 자가 있으면
 불난 것을 발견한 자가 불을 끄듯이
 아는 자가 그 심정의 불을 꺼 줘야 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겪고 아는 자는 심정이 상한 자들을 풀어 줍니다.

○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 겪는 자들 속에 뛰어들어
 함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 주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겪으며
 돕고 구해 줍니다.

다른 자는 모릅니다.

못 느끼니, 돕고 구해 줄 생각도 못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도 가난도 아픔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실제 바닥에서 산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아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의 역사를 펴신 것입니다.

같이 고통 속에 살지 않으셨다면

고통에 사는 자의 마음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고통을 다 겪어 아시니

진실로 창녀들도, 가난한 자들도, 각종 고통을 겪는 자들도

궁핍히 여기시며, 자기 몸보다 더 살피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같이 먹고, 같이 고통을 겪으며

역사를 펴셨습니다.

- 그런데 모르는 자는 자기 주관대로 이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겪고 살아서입니다.
이성을 모르면 진실로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메시아이신데,
수많은 자가 자기를 알기만 하면 목숨 걸고 좇는데
창녀들과 이성으로 만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지구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더 높은 자가 없는 최고 존재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도운 것이
돈 벌려고 그러셨겠습니까?

(마 9:11~13)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메시아를 기다리던 율법주의자들이 불신하니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가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안 해서입니다.
 신앙인들인데 신앙이 죽어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또, 신앙인들이 모르고 무지했습니다.
 무지한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무지한 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었습니다.
 율법에만 치우쳤습니다. 교리에만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타락되어 살았습니다.
 고로 더 소경이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우월주의 신앙이었습니다.

- 이런 자들은 형식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만의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월주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 우월주의로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사명 직책만 더 중심하고 살았습니다.
 메시아 말씀이 안 들린 것입니다.
 이들은 속은 썩은 자들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겉은 회칠한 무덤, 속은 썩는 시체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하다.” 하셨습니다.

(마 23:25~27)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
 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
 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교만하고 형식 신앙이며, 자기를 중심한 육적 신앙이었습니다.
성령도 사랑도 없고, 이성애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겪은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 그들은 자기 위치만 고수하려는 권위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사람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마 12: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자는 선한 자, 메시아와 하나 되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린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지금까지도 불신합니다.

- 그들은 자신들이 이성애 속해 사니 이성으로 보고,
교만하니 교만으로 보고 인식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하게 보이고,
마음이 강박한 자에게는 강박하게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구시대는 새 시대에서 죽었고 썩었습니다.

기다린 자가 왔는데도 그를 불신하고 계속 기다립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렸으나 못 맞고,

그 2세들이 맞고 천 년 역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새 역사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

타락한 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며 사는 자,

신앙의 잠자는 자, 육적인 자, 각종 죄인들, 악인들이

대적이 되어서 새 역사를 반대하였습니다.

항상 악인들과 썩은 종교 구시대인들이 뭉쳐서

하나님의 새 시대 뜻을 막고 불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이 그들과 하나 되어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사명자는 새 시대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펴 갑니다.

→ 이를 알고 자기 신앙을 굳세게 지켜 행해야 합니다.

◎ 모르고 불신하는 자들은 끝 날 때까지

구시대에 갇혀서 새 시대를 기다리며

고통을 받는 형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모릅니다. 형벌 받을 때 압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모릅니다. 지나간 후에 알게 됩니다.

○ 우상의 나라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며 혼드시킵니다.

정신 차리라고 무섭게 혼드시킵니다.

사람이 말 안 들으면 몸을 잡고 좌우로 흔들듯이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불, 바람, 지진, 가뭄, 홍수, 기후 변화를
사역자로 삼고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시 104:4)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
며”

우상 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깁니다.

결국 자기 구원을 못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들은 사망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은 자기 영도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섬기면 구원받는다고 매일 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양심을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셔도 안 섬깁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입니다.

- 한국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200여 년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도 많으나, 아직도 믿지 않는 자도 많습니다.
또 아직도 우상 종교에 뿌리박아 돌이키지 않고
신당을 차려 조상 신을 섬기고 삽니다.
-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해 줘야 될 것을 다 해 주시고,
그래도 안 하면 심판하십니다.

사람도 자기가 해 줄 것 다 해 주었는데도 안 될 때
불만도 원망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과일나무에 해당하게 해 줄 것 다 해 줘도
나무의 열매가 소원대로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없다.” 하고
버리기도 하고, 품종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 해 줘야 할 것인데 안 해 주어서 자기 기대대로 안 된다고 하면
자기 책임 못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먼저 다 해 주고,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기대대로 안 되면
그때에서야 달리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고의 대가입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합니다.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
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 만물도 존재하는 대로 사람이 대하는 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귀히 보고 대하면 그 존재물도 사람이 행한 대로 대해 줍니다.
만일 사람이 해 줄 것 다 해 주며 대해 줬는데도
기대대로 안 되었다면
그 존재물이 한계에 처해서입니다.

동물도 귀히 보고 존재대로 대하면 그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자기 자신도 누가 자기를
귀히 보고 가르치고, 귀하게 여기고 쓰면
그 대가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법에 따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만물도 사람도
행한 대로 대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 만물을 귀히 보고 대한 자들은 만물로 얻고 삽니다.
선생도 월명동의 나무, 돌, 바위, 환경을 귀히 보고 대하니,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시고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귀하게 보아야
그중에서 더 귀한 자를 발견하여
자기 소원을 이루게도 됩니다.

- ◎ 성경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를 보면,
선한 자들이 가는 길을 원수들이 막아서 다른 길로 갔을 때
오히려 더 좋게 되었습니다.

- 야곱도 장자인 에서 형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 하니
고향을 떠나 외가로 가서
사랑을 이루고 가정을 꾸리고 이상세계를 이뤘습니다.
축복 중에 재물 축복도 받았습니다.
-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은
그렇게도 충성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악하게 대하더니
결국 애굽에 팔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뜻을 이루는 것을 구상하셨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이용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요셉을 인도하시어
고통을 치르면서 하나님 뜻을 펴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견디며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과 부모들을 모두 애굽에 오게 하였고,
이 표상 가정을 중심으로 민족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족속이 커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본토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무한한 뜻을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당세와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틀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좇는 자는 악한 자가 미워 해를 줘도
하나님이 돕고 뜻을 이루며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 어떤 자는 하나님은 왜 악인을 멸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신다고 낙심합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미워하여도
의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펴서

이상세계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반대한 자는 행한 대로 그 주관권에 살게 하십니다.

그들은 선한 자를 무지하고 악하게 대한 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 하나님은 항상,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모르는 자들에게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행할 때 당시에는

모르는 자들은 해 주는 자가 잘해 줘도 잘 모릅니다.

끝나고 난 후에 그때야

지난날 하나님이 돕고 행하셨음을 깨닫습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언제나 절대 믿음, 절대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한다고 하여도

절대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는 절대자이시라

얼마든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이를 알고 사는 삶이 최고의 것을 알고 사는 삶입니다.

◎ 마지막으로 잠언 9개를 전해 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1. 사람이 사랑하고 가까이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합당한 것은 들어 주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2.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깨달으려 해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안다.
3. 하나님이 돕지 않은 뜻도 깨달으려 해야 안다.
4. 보아도 들어도 관심 가져야 안다.
5. 하나님은 자기와 민족과 세계를 매일 돕는다고 단정하고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된다.
6.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도와도 모른다.
7. 존재물이 있다고 생각해야 보인다.
8. 없다고 생각하면 생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있어도 안 보인다.
9. 인식의 눈,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을 뜨고 봐야 보인다.

◎ 오늘 하나님이 해 줄 것을 다 해 주시며
 뜻있는 곳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으니
 모두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믿음을 굳세게 하기 바랍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